

1-8

대설·한파

한눈에 보는 안전매뉴얼



“대설·한파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?”

체온 유지 용품(옷, 모자, 장갑, 신발 등)을 준비해요.



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요.



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해요.



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아요.



미끄러운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지 않아요.





1

대설·한파의 정의

대설

▶ 겨울철에 일정시간 동안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현상

구분	내용
대설 주의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•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
대설 경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(산지는 30cm 이상) 예상될 때 •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

한파

▶ 저온의 한랭기단이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

구분	내용
한파 주의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월~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,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-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-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한파 경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월~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, 평년값 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- 아침 최저기온이 -15℃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-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


2

학교조치사항

1단계
예방·대비조치
사항

[사전점검 및 안전교육]

- ✓ 교직원 비상 연락망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점검·확인
※ 유관기관: 교육부, 기상청, 행정안전부, 한국전력공사 등
- ✓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·운용
- ✓ 교실 내부 적정온도 유지(18~20℃)
- ✓ 학교시설 안전점검
 - 조립식, 경량철골조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지붕 제설 계획 수립
 - 경량철골조 건물 지붕, 연결통로의 접합부 점검 및 보수
 - 과거 대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한 점검
 - 통학로 등 교내 빙판 제거 및 각종 배관 동파 점검
 - 제설 장비·인력·자재(염화칼슘, 모래, 소금) 점검
 - 학교 내 위험지역(붕괴, 눈사태 등) 지정 및 표시
 - 출입구에 흙털이 발판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
 - 제설 자재 결빙 취약구간 및 등하교 경사로에 사전 살포
- ✓ 대설·한파 대비 학생행동요령 교육

2단계 대응
대설·한파
주의보 발령조치
사항

- ✓ 예방·대비 단계 [사전점검 및 안전교육] 강화

[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]

- ✓ 학교장은 통학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등하교시간 조정을 검토
 - 등·하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(휴업시)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시·도교육청(교육지원청)에 보고
※ 대설주의보에도,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휴업결정 가능
※ 시·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음
- ✓ 재난으로 인한 임시휴업 시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권장
 - 전제조건: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·하교 시 학부모(대리인) 동행
※ 단, 재난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, 학교 내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운영



- ☑ 한파특보로 인해 등교에 지장이 있을 경우, 등교시간 조정을 통해 학생 안전 조치 실시
 - 등교시간 조정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교육청에 즉시 보고

[상황보고 및 응급조치]

- ☑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
- ☑ 비상 상황(인명피해) 발생 시 보고 철저(교육청, 소방서)
 - 피해 내용 / 현재 학교조치사항 / 향후 계획 등



3단계 대응 대설·한파 경보 발령



- ☑ 예방·대비 단계 **[사전점검 및 안전교육]** 강화
- ☑ 2단계 대응 **[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]** 지속
- ☑ 2단계 대응 **[상황보고 및 응급조치]** 지속



4단계 복구 후속 조치



- ☑ 대설 후 점검 사항
 - 통학로 및 교내 제설 작업, 건물 지붕, 옥상 등 쌓인 눈 제거
 -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후 학생 입실 조치
- ☑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 안전대책
 - 학교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, 임시휴업 조치
 -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 학교 이용,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
- ☑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
 -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
 - 피해원인 조사·분석, 유사사고 방지·예방대책, 복구 계획 수립



3

학생행동요령

구분	학생행동요령
등교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 매체(TV, 라디오) 및 인터넷(기상청)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. •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. • 체온 유지 용품(옷, 모자, 장갑, 신발 등)을 준비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두 착용을 자제하고, 미끄러운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. • 대설·한파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 교사나 학교에 연락한다.
등·하교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.(낙상방지) • 횡단보도, 도로 주변, 경사지에서 차량 안전에 유의한다. • 하천이나 저수지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. • 걸을 때 빙판길이 있는지 확인하고, 최대한 피해서 걷는다. • 경사진 빙판길을 지날 때 낮은 자세로 지지물을 잡고 조금씩 걷는다.
학교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는다. • 눈이 많이 쌓인 경사면 주변과 위험지역(맨홀, 공사장 등)에 접근하지 않는다. • 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.
가정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등·하교 시 행동 요령을 따른다. • 폭설로 고립 시 건물 밖에 고립표식(적색)을 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.



1 체온유지 용품(옷, 모자, 장갑, 신발 등)을 준비한다.



2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.



3 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.



4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는다.



5 미끄러운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.



4

참고사항

• 한파 질병상식

종류	증상	대처요령
저체온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 장애 발생 • 점점 의식이 흐려짐 •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• 팔,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바로 119로 신고한다. •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준다. • 겨드랑이,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둔다. (이런 재료가 없는 경우 사람을 껴안는 것도 효과적임) •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한다.
동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도: 찌르는 듯한 통증, 붉어지고 가려움, 부종 • 2도: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• 3도: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, 감각 소실 • 4도: 근육 및 뼈까지 괴사 	<p>※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다. •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(38~42℃)에 담근다. * 38~42℃: 동상을 입지 않는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• 얼굴 귀: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. • 손, 발: 손가락,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운다. *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함 •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한다. *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준다. • 다리, 발이 동상에 걸린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한다. * 다리에 동상이 나면 눕히고 난 후에도 걷지 않는다.
손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상에 의한 손상 * 미끄러짐, 넘어짐,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, 골절, 타박상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홀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한다. • 환자가 편안해하는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도움을 청한다. (필요 시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)